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CMYK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6일 목요일 (음 9월 6일) 제16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A축협 조합장 딸, 지난해 B원예농협에 채용… B원예농협 조합장 아들은 올해 A축협에…

도내 농협 간부 자녀들 '품앗이' 채용 성행 '눈총'

공정 · 객관적 채용 과정 의혹만… 황주홍 의원 "전수조사 통해 진상 밝혀야"

전북지역 A축협 조합장 딸은 지난해 B원예농협에 지난해 채용됐다.

그런데 B원예농협 조합장 아들은 올해 A축협에 취업하는데 성공했다.

또 도내 C농협 전 조합장 아들은 D농협에, D농협 전 조합장의 아들은 C농협에 각각 사이좋게 채용됐다.

이는 농협 간부들이 자녀 취업에 '품앗이'를 한 대표적 사례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들통 났다.

청년 실업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처럼 농협 지역조합원 자녀들의 고용세습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조합 임직원 자녀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역조합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자녀 13명이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 또는 그 인근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38.4%에 해당하는 5명은 부모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지역 조합에 채용됐다.

연도 별로 보면 2012년 1건에 이어 2013년 4건, 2014년 1건, 2015년 4건, 올해 3건이다.

'품앗이' 채용이다 보니 공정 · 객관적 채용 과정에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명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을 거치는 '전형채용' 방식으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나 채용과정에서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구심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인원의 53.8%에 해당하는 7명은 부모의 소속 조합과 동일한 시군 내 조합에 채용됨에 따라 부모의 영향력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인근 조합 간에 자녀 취업을 '품앗이'한 정황도 상당수 발견됐다.

결국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좌절로 귀결되지 않도록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사회체제가 아닌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원초적인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는 행태에 비난이 모인다.

황주홍 의원은 "아무리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있겠느냐"면서 "농협 내에서도 불투명한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

5일 전북도청 일원에서 '제11회 국제탄소페스티벌'이 개막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지사가 탄소소재로 만든 자전거를 들어 올리고 있다.

탄소산업의 모든 것… 국제탄소페스티벌 막 올라

성과보고회 · 산업 역사 사진 전시 · 전문가 대회 등 프로그램 다채

21세기 꿈의 신소재인 탄소산업의 최근 동향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제11회 국제탄소페스티벌 행사가 '탄소복합재 허브 전북, 새로운 여정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5일 전북도청 일원에서 막을 올렸다.

국제탄소페스티벌 행사는 올해로 11번째다.

올해 대회는 지난 10여년 간 전북 탄소산업이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눈에 띤다.

2011년부터 5년에 걸쳐 추진해 온 탄소밸리 구축사업 성과보고회, 전북탄소산업 10년의 역사 사진전, 독일 MAI 카본클러스터와의 국제컴퍼런스, 미래 탄소전문가 경진대회, 각종 체험코너 등 10여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송하진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탄소 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 탄소복합재 산업 집적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정운천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계 복합재산업 발전과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MAI카본클러스터 차크 폰 레덴 이사, 영국 AMRC연구소 존 바라과나 부소장, 코오롱 ·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0여개 대기업 임원 등이 참석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형 공동체 지속 발전 지원체계 구축

전주시가 온두레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전주형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5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올해 이음단계 온두레공동체로 활동하고 있는 12개 온두레공동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음단계 공동체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동체별 특성에 맞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12개 이음단계 공동체들의 경영과 판로, 생산 등 현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동체 상호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각 공동체들의 사업추진 현황을 서로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온두레 공동체 대표들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이음단계 이후의 지속적인 공동체 운영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듣고, 현재 공동체 운영 현황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진입을 위한 공동체들의 의향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설문조사지를 작성했다.

이어 채은아 전주도시혁신센터 협동조합 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설문조사로 드러난 공동체들의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이 실시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김성국 천사길사람들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전주시의 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의 결실을 맺고, 성공적인 공동체 사례로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의 진출을 희망한 공동체들에게 전문가 연계를 통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매일 INDEX

3면 야권 대선주자 움직임 차별화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차기 대권주자(잠룡)들의 움직임이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4면 "성 비위 교원들 퇴출돼야"

16면 익산 국화축제, 28일 개막

본사 신임 회장에 김조웅 전 상무

본사 신임 회장에 전북도민일보사 상무를 역임한 김조웅씨(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김 회장은 5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전주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 전민일보 사장 등 도내 언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언론인이다.

언론계와 인연을 맺기 이전에는 기업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경영 전문가로 알려졌다. 온화한 성품에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이기홍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출

이기홍(61 · 사진)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스포츠 대통령'이라 불리는 통합 대한체육회의 첫 수장이 됐다.

이기홍 후보는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892표 중 최다인 294표를 획득해 신임 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회장은 이날 유효표 892표 중 294표를 획득해 213표를 얻은 장호성(61) 단국대 총장을 81표 차로 앞섰다.

기호 5번 전병관(61) 경희대 교수가 189표를, 기호 2번 이에리사(62) 전 국회의원이 171표를 가져갔다. 기호 1번 장정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은 25표에 그쳤다.

이날 투표에는 대의원과 가맹단체 임원,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등에서 무작위 선정된 1,405명의 선거인단 중 89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초대 통합 체육회장에 당선된 이 신임회장은 6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이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로 향후 4년4개월 동안 한국스포츠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물론 엘리트와 동호인을 통틀어 600만 명에 이르는 등록 선수들의 관리도 책임진다.

임기중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대회도 치러야 한다. /김민근 기자